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700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11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꽃 피우기 시작한 화면해설, 시각장애인이 열매 맺어야.../ 황덕경(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장)

### 장애인계 뉴스

1. 케이블 유료방송 프로그램도 화면해설로 볼 수 있게 된다
2.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차별, 법적인 해결에 나서
3. 의료기관·문화시설, 시각장애인에겐 여전히 불편한 곳
4. 최동익 의원,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5. 한시련, 지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심화재활교육 실시
6. 시각장애 학생들, 코끼리 만지기를 통해 두려움에 도전하다
7.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사람이야기: 시각장애인과 미술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준,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엄정순 대표

독자마당: 만추를 건너며 / 이진규 (경기도 포천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1월 1일~11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9): '패키지상품'과 '웹서핑'의 순화어는?

## 포커스

꽃 피우기 시작한 화면해설, 시각장애인이 열매 맺어야...

황덕경(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장)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있어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더욱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급작스런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은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디지털 환경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로 대표되는 TV 방송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방송은 이미 가장 일반적이고 친밀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며 가장 보편적인 문화 및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그러나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화면해설 또는 수화 및 자막의 제공 없이는 TV 방송물을 온전히 시청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보접근의 차별은 소외의 개념을 넘어 고립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 소유의 격차는 단순한 정보격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형성된 가능성(possibility)의 격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대비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및 영상물에 대한 주권 행사에 필수적인 개념이 바로 화면해설서비스와 수화 및 자막서비스이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송의 공공정책이 바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 고시)’이다.

장애인방송 고시는 방송법의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

장애인방송 고시에서는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사업자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지정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고시의무사업자(매출액과 시청 점유율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고시)로 구분하여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물을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이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된 것이다.

국내에 화면해설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하여 주도하였으며 이후 시각장애인들이조차도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화면해설의 개념을 널리 알려왔다. 지상파 TV

에서 화면해설방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현재 중앙 지상파 TV 4사의 화면해설방송 비율은 전체 방송 대비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화면해설방송은 장애인방송 고시에 따라 전체 방송 대비 약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 사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눈부신 발전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에서는 화면해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에서도 화면해설을 전격 실시하여 현재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전국에 지정된 13개의 극장을 찾아갈 경우 최신 개봉영화를 화면해설로 관람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되었다. 바야흐로 화면해설서비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화면해설방송이 달고 단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성으로 보살피고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화면해설방송을 도입시키고 발전시켜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개발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화면해설방송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방송 고시를 통하여 화면해설방송이 전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미 몇몇 영상업체에서는 화면해설방송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탄생한 화면해설방송이 비시각장애인의 영악한 상술에 휘말려 영리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시청자들이 반드시 화면해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화면해설의 열매는 채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향기로움은커녕 오히려 악취만 풍기는 눈엣가시가 될 것이다.

## 장애인계 뉴스

### 1. 케이블 유료방송 프로그램도 화면해설로 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내년부터 시청각 장애인이 종합유선방송(케이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화면해설 및 자막, 수화 등 장애인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올해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SO(지역케이블방송사업자)·PP(방송채널사용자/프로그램공급자)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홀딩스, 씨제이오쇼핑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2013년도에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공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연평균 시청률 등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이들은 2016년까지 화면해설방송 5~7%, 자막방송 70%, 수화통역방송 3~4%의 편성목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의 장애인방송 고시에 따르면 장애인방송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SO(지역케이블방송사업자: 가정에 케이블과 컨버터를 설치해 주고, 시청료를 받는 케이블TV 사업자로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이 속함-편집자 설명):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이 1%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PP(방송채널사용자/프로그램공급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곳으로, TvN·채널CGV·net 등의 채널을 소유한 CJ E&M 등이 속함-편집자 설명):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이 1%를 초과하지 않고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2% 이상인 사업자

이로써 장애인방송을 편성·공급하는 방송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시청각 장애인의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11월 20일까지 진행했다.

## 2.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차별, 법적인 해결에 나서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은 4년전 17대 대선과 비교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 등 4개 단체는 11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보장을 요구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점자가 목자보다 3배 이상의 면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동일한 면수로 제작되고 있으며,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이 많음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선거정보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각장애인도 후보자 토론회의 수화통역인이 1명이다보니 통역의 누락이 발생하고 수화통역 화면의 크기가 작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시·청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선거공보 제공,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 및 폐쇄자막 방송 개선, 청각장애인 선거광고 시정 등 총 3건의 임시조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각장애 당사자인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4일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공보물을 점자로 제작할 경우 발행매수가 3배 이상 늘어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목자와 같은 면수제한을 받고 있어 비장애인과 같은 선거정보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이에 대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면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 대선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 시각장애인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동일한 점자형 선거공보물 의무적 제공,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임의제공 규정을 의무제공으로 개정,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매수제한 규정 개정, 공직선거법 65조 4항 폐기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 3. 의료기관·문화시설, 시각장애인에겐 여전히 불편한 곳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11월 21일 2012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투표소의 90% 이상이 투표소 주 출입구와 기표대 등의 시설물 접근성을 만족하고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는 보이스아이와 확대문자 형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30% 미만으로 정보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통과유효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90% 이상이 기준을 만족했으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주출입구 점형블럭, 점자 안내판 설치 등은 20%~60% 수준이었으며, 의료행위 시 수화통역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의료기록을 점자 및 확대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25% 미만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문화예술시설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시설 접근성 보장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설치 등은 부족했다.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사전요구 시 점자 및 확대문자 형태의 리플릿 제공은 20%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올해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전국 6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에서 총 159명의 모니터링단이 3개월간 월 2회에 걸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167곳(4월), 의료기관 158곳(5월), 문화·예술시설 72곳(6월)의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정보접근성 등을 중점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모니터링의 세부 내용과, 주요 개선 사례,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과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해당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여 즉각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등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2009년부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 4. 최동익 의원,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동익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의 사회활동영역 재검토,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중앙정부 환원,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액 근로기준법 위반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수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은 1999년부터 국정감사 정책질의의 전문성 및 대안의 실효성, 언론보도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2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11월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5. 한시련, 지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심화재활교육 실시

2012년도 제2차 전국심화재활교육이 지난 11월 2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됐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시각장애인 지도자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지회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하성준 한시련 정책실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지회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자립생활센터에 관한 개념에서부터 진행상황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 홍은녀 팀장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됐다. 올해 개정된 사항과 활동보조인 관리에 관한 조언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활용 가능한 실무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이날 강의 모두 지회와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보니 참석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등 강의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마지막으로 최동익 한시련 중앙회장의 강의를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원으로서는 한해 장애인관련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연합회장으로서의 지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으로 전국 지부, 지회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6. 시각장애 학생들, 코끼리 만지기를 통해 두려움에 도전하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불교의 열반 경에 나오는 우화로,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물론 그 안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담겨있다.

이것을 타이틀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흥미롭게도 작품을 만든 이들이 바로 시각장애인이며, 실제 코끼리를 만지고 그것을 조형물로 표현한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우리들의 눈이 주최하는 2012장님 코끼리 만지기(청주맹학교-청주코끼리전)이 그 주인공이다.

얼핏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제목만 들어서는 단순히 시각장애 학생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이를 찰흙으로 빚었다는 것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프로그램이 가진 철학과 깊이감이 느껴진다.

‘우리들의 눈’ ‘장님 코끼리 만지기’프로그램은 다섯 단계로 진행되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창의 아트교육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내 동물원이 아닌 태국 ENP (Elephant Nature Park)에서 가서 코끼리들을 만져보고 체험해 그 의미가 더 크다. ENP는 과도한 벌목노동, 관광산업, 지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코끼리들을 되사서 자연 속에서 치유하는 코끼리 구조센터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목적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두려움에 도전하는 것에 있다. 품안의 사이즈를 넘어서는 거대한 무언가를 경험하고 도전함으로써 이를 창작으로 빚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우선 사전교육단계로 미술수업을 통해 기초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코끼리 사육사를 초청해 코끼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코끼리를 상상하고 안전교육도 함께 받는다.

다음은 체험교육으로 실제 코끼리를 만나는 시간이다. 조련사의 도움을 받아 먹이를 주고 타보기도 하면서 실제 코끼리를 만져본다.

그 후 창의 미술교육을 통해 코끼리를 만난 경험으로 얻은 오감의 기억으로 그리기, 만들기 등을 한다. 그 후 공동작업과 전시회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전시회에 출품된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한 시간들이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번 전시회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엄정순 대표는 “낮선 여정을 끝낸 뒤 학생들이 만든 코끼리 안에는 자신과 타인의 트라우마, 환경파괴 같은 공동체의 고통을 담겨 있었고, 끝내 코끼리를 만지지 못했던 학생은 그 두려움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다.”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시각장애 학생들이 세상을 배우는 움직임이 된다면 코끼리로드를 계속해서 이어



져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프로그램은 EBS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돼 상영된다. 사전 교육단계에서부터 태국 ENP에서 실제 코끼리를 만지는 장면, 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 등이 모두 담긴 이번 방송은 오는 11월 27일 화요일 저녁 9시 50분 EBS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의 고백> 제8부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편을 통해 방송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우리들의 눈 갤러리에서 12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시된 작품은 모두 만져볼 수 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우리들의 눈(전화 02-733-1996)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7.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내용들이 담겨있으며, 기능별로 분화된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21개 추진목표와 그에 따른 57개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연계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정부에 대해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장애인 등록등급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한다. 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
2.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절한 생활수준 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장이 미흡한 교육권과 건강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3.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장애유형 및 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차원으로 전환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람이야기

### 시각장애인과 미술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준,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엄정순 대표

시각장애인과 시각예술인 미술은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미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미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편견을 깨려고 노력하는 이가 있다.

능력 있는 화가이자 대학교 교수로 소위 부러울 것 없이 잘나가던 이가 미술 수업 자체가 없던 맹학교에 직접 찾아가 수업을 하겠다고 한다. 모두가 좋게만 본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몇달 나오다 말거라 생각했다.

그 수업이 17년을 이어오고 있다. 세월만 흐른것이 아니라 수업은 깊어지고 넓어졌다. 이것을 이뤄낸 이가 바로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우리들의 눈 엄정순 대표이다.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어느 곳인가.

“서울맹학교, 한빛맹학교, 경북교회, 청주맹학교 등 총 네 곳이다”

-시각장애아동 미술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충주성모학교에서 처음 시작했다. 자원봉사라기보다 예술가로서 관심이 있었기에 해서 맹학교 수업을 자진해서 맡게 됐다. 대단한 결정은 아니었다. 예술가들이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듯이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진 걸 미술로 함께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맹학교 미술수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장님코끼리만지기전’이 독특하다.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는.

“맹학교 수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교육서비스가 서울에 거의 집중돼있었다. 자신의 한계를 미술로서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서비스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주제를 갖고 전국의 학교를 모두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게 됐다. 지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단순히 코끼리를 만지고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를 만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세상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움직이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다녀오면 아이들이 정말 눈에 띄게 정신적인 성장을 한다. 해가 갈수록 저희 안에서도 시스템이 생기면서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다섯 곳 했으니깐 7개 남았다. 앞으로

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완주를 하고 싶다. 그때가 돼야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 같다.

-<장님코끼리만지기전>에서 심리학 교수님이 함께 간 것이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 워크숍도 그렇고 심리치료를 선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회적인 상처가 덜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살아오며 겪었던 상처들이 많이 있다. 심리치료를 하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시각장애인분들이 장애를 극복해야한다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어서인지 일부러 굉장히 긍정적이려는 노력을 한다고. 어찌보면 남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희망차고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심리치료극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심리적 무대를 만들어놓았더니 이분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술은 자기표현이다.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는 것처럼 미술도 나를 세상에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심리치료를 하고 나면 미술작업을 할 때도 훨씬 자유로워진다. 상처가 오히려 창의성이 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미술수업에서 나아가 시각장애인예술협회를 설립한 계기는.

“처음에는 혼자 한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다른 맹학교에서도 수업요청이 왔다. 수업이 많아지면서 다른 선생님도 오시게 되고, 강사료나 재료비를 모두 협회가 부담을 하고 있다. 학교는 수업시간만 내주고 나머지 물질적인 비용은 다 협회가 부담하는데 그러다보니 후원을 받아야했다. 사단법인이어야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었고, 현실적인 필요에서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

-협회 이름을 ‘우리들의 눈’이라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맹학교 수업을 하기 전에는 사실 시각장애인들의 세계를 몰랐다. 미술수업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다. 개개인의 시력이 다르듯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도 그저 시력의 차이가 있을 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런 뜻에서 보이는 눈이나 안 보이는 눈이나 다 눈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짓게 됐다.”

-10년 넘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햇수로 17년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일에 매력을 느낀다. 애들과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결과물도 좋고 저한테도 하나의 경험이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이 미술을 같이 해본다는 거. 그런 게 생동감과 에너지를 주고 계속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계기가 된다. 지칠 만도 한데, 약간 지쳤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게 된다. 서로 같이 한다는 것이 주는 동력 같다. 만약에 혼자 했다면 매번 해쳐나가기 어려웠을 것 같다.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였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생겼을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어떻게 보면 미술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기회인데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가진 능력이 드러나고 그것이 감동을 주고 본인은 자신감이 생기고 성숙한다.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행복하다.”

**-개인적인 작품활동도 하고 있는지.**

“계속 하고 있다. 아무래도 두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다보니 개인적인 회화작업을 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일이 이제는 직업이 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저희가 크게 교육파트에서 맹학교 수업이 있고, 지방학교 수업이면서 독립적인 내용의 코끼리 만지기같은 프로그램과 성인워크숍이 있다. 성인워크숍이 3년, 코끼리 만지기프로그램이 5년, 맹학교 수업이 17년이 됐다. 각각의 프로그램의 성격을 심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브레일타임즈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실나 온다는 생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상당히 자폐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좋거나 싫거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건 확실하다. 멀어지는 사람을 찾지 않는 세상이 됐다. 내가 귀찮아하는 순간 세상이 나를 한순간에 밀어낸다. 각자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경험들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주시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에 좋으실 것 같다. 저희 갤러리도 와주시면 좋고, 오시는 길이 어려워서 죄송하긴 하다. 저희 갤러리가 아니더라도 많이 가보셨으면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시각장애인이 미술관에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열려있고 준비도 되어있다. 문화적인 체험을 많이 부지런히 하시면 건강해지실 것 같다.

## 독자마당

### 만추를 건너며

이진규 (경기도 포천시)

뜨락에 서성이는 낙엽 향을 방안으로 들이려 창을 열자 쓸쓸함이 먼저 들어섭니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걸어놓은 알람이 또 만추입니다. 만추의 허전함이 존재의 경이로움을 퇴색시키며 삶의 의미를 거듭 묻습니다. 온 산야도 우수를 붓에 찍어 갈색의 시를 쓰며 명상에 들고, 가을빛 내 산책로의 계곡물도 돌돌돌이별을 노래합니다.

쓸쓸함도 허접한 일상을 걸러내는 정화기능이 있음이니, 나무들이 잎 떨어진 생채기를 침묵으로 매만지며 땅속 깊숙이 뿌리로 통곡하는 만추에는 나는 어김없이 가을매니아가 되고 맙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발에 바스락 밟히면 쓸쓸함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근원을 모르는 이 쓸쓸함을 나는 만추의 현기증이라고 불러봅니다. 낙엽마저 시들어 티끌로 퇴화할 즈음 또 얼마나 건조한 종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만추는 해묵고 빛바랜 상념들을 슈아와 내 감성을 무단히 간섭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를 찾아와 슬픔으로 진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내 영혼에 불을 밝히고 짙은 느낌표로 일렁이며 ‘왜’라는 화두 안에 나를 가둡니다. 그녀와 나의 세월 저 편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머무르고 싶은 우리의 학창시절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사춘기 성장통을 독서와 글쓰기로 밀어내며 문학을 푸른 꿈으로 키우던 감성이 촉촉하고 영혼이 맑은 소녀를 만납니다. 클래스메이트 중에서도 유난히 책 읽기를 좋아하던 우리는 가입한 독서클럽에서 독서의 향기를 함께 흡수하며 각별한 우정으로 엮힌 친구입니다. 방학 때면 가족들이 읽어주는 책을 또박또박 점자책으로 엮어와 한 권의 설렘을 내게 건네주던 순간도, 당시 젊은이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모운숙의 ‘렌의 애가’를 읽으며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실체 앞에 온 가슴으로 감동하던 순간도, 한때 빛나간 사랑의 고뇌와 방황의 과문들을 잔잔한 필치로 써 보낸 이야기들도 그녀와 나 사이에 쌓인 우정의 편린들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 따라 바람 따라 더 흐르며 아주 오랜 세월동안 벗으로서 서로에게 길을 묻고 대답하며 걸어온 길이 더 길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저 들판에 떠도는 스산한 바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우정도, 인연도, 사랑마저 외면하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바람처럼 떠나고 말았습니다.

곁에 두어 아름다운 향기가 한순간에 증발한다는 건 그 주변을 참으로 탁하고 메마르게 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흘린 어떤 암시 같은 언어들에 저 들녘의 낙엽처럼 내 가슴에 구르며 새로운 의미와 빛깔로 다가옵니다.

어차피 죽으려면 가을에 죽고 싶었던 그녀의 센티멘털도, 뿌리 너럭한 나무 밑 어디까지 낙엽에 묻혀 가을빛 갈색으로 숨 쉬고 싶었던 그녀의 벨랑콜리도, 쓸쓸함에 절여져 삶이 충분히 발효되어야 생사의 경계선이 소멸되리라던 그녀의 판타지도 이제 그녀와 함께 한 줌의 쓸쓸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로 하여 더욱 푸르렀던 청춘의 몸짓도, 꿈도, 그 싱그러운 울림들마저 이 만추에는 내 서정을 적시는 한낱 쓸쓸함이 되고 맙니다. 오로지 문학적 탐구욕과 지적 능력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걸어온 길도 제 손으로 꺾어야 할 만큼 외로운 노정이던가요?

그녀의 소설 한 편이 실루엣처럼 스치며 안타까움을 드높입니다. 소설이 소설가에겐 연인일 수 있거늘 그마저도 덧없는 광대놀음에 불과하던가요? 그 풍요로움도 문학도 친구도 자신의 존재마저 거추장스런 소음이던가요? 나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아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덜 외로울 욕심에 아주 남이 되기 싫은 욕심에 떼쳐보는 처연한 저항의 다름 아닙니다. 쓸쓸함이 엉기면 외로움이 되나요? 사람이니까 그냥 외로운 건가요? 슬픔은 눈물 몇 방울로 희석되지만 외로움은 만추가 가고야 묻어지는 감기 같은 시달림이 아닌지요? 바람이 불니다. 바람도 외로워서 마을로 내려가고 나는 외로워서 산길을 오릅니다. 오르다 나무에 기대봅니다. 나무가 외로움을 덜어갔는지 순간, 나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나무도 만추에는 나만큼 외로운지 모릅니다. 외로울 땐 누군가에 기대면 덜 외로워진다는 것을 나는 이내 알아챱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 넓은 세상에서 고독 한 줌 기대놓을 나무를 아니,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흔들린 영혼은 아닐는지요? 모릅니다. 그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정답도 오답도 따로 있지 아니한 것. 다만 사람마다 등을 미는 바람의 풍향이 달라서 어차피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 말하지 않던가요.

외로움이 정말 무거울 땐 어디론가 떠나보라고 바람이 나를 부촉입니다. 한동안 떠나가서 심연의 귀를 열고, 생명의 순리와 자연의 순환과 영혼이 익어가는 생방송을 듣노라면 이 만추도 슬며시 한물지려는지요? 바람이 갈대숲을 내달으며 사르르르, 만추를 건너갑니다. 저 바람이 가을을 툭툭 털고 길 떠나기 전에 나도 서둘러 이별의 노래 한 곡조쯤 흥얼거리며 이 만추의 숲을 건너 볼 일입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1월 1일~11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1월 1일(목요일)부터 4일(일요일)까지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미국 순회 초청 공연을 인솔했으며, 5일(월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6일(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단 회의와 '신해양시대 대비한 차기정부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와 민주통합당 임시지역대의원 대회에도 자리를 함께 했다.

7일(수요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면담을 마친 후 민주통합당 긴급의원 총회에 참석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 토론회 및 축사를 했으며, 장애계·학계 전문가들과 장애 등급제 폐지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이승기, 김동범)를 진행했다. 이날 메디컬투데이 등에는 동일성분 약가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8일(목요일)에는 복지부 국제협력관 면담을 가진 후, 국회방송과 장애인연금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회 참석,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과의 면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과의 면담,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9일(금요일)에는 관악구청 생활복지과와 현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도 만나 장애인 웹접근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1일(일요일)부터 14일(수요일)까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태지역 정기총회(World Blind Union General Assembly)에 참석했다.

12일(화요일)에는 연합뉴스, 서울경제 등에는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병원 마약류 관리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14일(수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회의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 에 참석한 후, 싱가포르 지체장애인협회장단과 오찬을 나누고 국회관람을 인솔했다. 이어 한시련 이사회를 주재하고 건강복지를 향한 임상영양서비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같은 날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 참석했으며, 이어 실로암콘서트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메디파나 등에는 최동익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고카페인음료 시장을 지적한 내용이, 에이블뉴스 등에는 국정감사 장애인복지분야 점검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15일(목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전략회의에 참석했으며, 이어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법인 20주년행사에서 축사를 전한 후, 한시련 서울지부를 방문했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9)

### 1) '패키지상품'의 순화어: 꾸러미상품

대개 패키지는 물건을 보호하거나 수송하기 위한 포장 용기를 뜻하지만, 여기서 패키지 상품이란 여러 가지를 한 묶음으로 꾸러 놓은 상품을 말한다.

꾸러미상품(패키지 상품)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 상품들을 한 상품처럼 꾸러 놓고 따로따로 구매할 때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 판매점에서는 삼각대, 카메라 청소 도구, 메모리 카드 등을 카메라와 함께 묶어 꾸러미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여행사에서는 항공권, 숙박, 음식, 여행 일정 통합 서비스가 포함된 꾸러미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물건을 하나씩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박리다매를 이유로 입소문과 함께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꾸러미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예시

ㄱ. ○○온라인 쇼핑몰은 휴대 전화와 노트북을 엮어서 꾸러미상품으로 판매한다.

ㄴ. 느긋하게 연휴를 즐기고 싶은 숙박객을 위해 ○○호텔은 숙박과 식사권이 포함된 꾸러미상품을 판매한다.

### 2) '웹서핑'의 순화어: 누리검색

웹서핑은 '흥밋거리를 찾아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 이리저리 접속하는 일'로, 이를 다듬은 말은 '웹서핑'이다.

웹서핑의 '서핑(surfing)'은 '파도타기'란 뜻으로 예전부터 쓰여 왔던 외래어인데, 웹서핑은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넓은 바다에서 파도타기를 하듯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둘러보기도 하며 즐기는 것이다.

컴퓨터와 관련한 용어는 외래어가 상당히 많을뿐더러 빨리 정착되어 쉽게 우리말로 다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웹서핑은 다듬은 말인 누리검색으로 바꿔 불러도 어색하지 않고, 의미도 잘 통하므로 웹서핑 대신 누리검색이라 쓰는 것이 좋겠다.

-예시

ㄱ. 이제는 이동 중에도 똑똑전화(스마트폰)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손쉽게 누리검색(웹서핑)을 할 수 있게 됐다.

ㄴ. 호텔 방 안에서도 굳이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 없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용해 누리검색을 하거나 전자 우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

~~~~~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